

현대시에 나타난 제주도의 양상과 의미

강 영 기*

차 례

1. 서론
2. 문학 공간 의미 분류와 제주도
3. 현대시 속에 나타난 제주도의 문학 공간 의미
4. 현대시에 나타난 제주도의 양상과 의미가 지닌 문학적 의의
5. 결론

1. 서론

문학에서 지역은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 준다. 특히 지역은 작품을 통해 지역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역이 지닌 문화적 상징의 의미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렇듯 문학에서 지역의 의미를 살펴보려는 시도는 이미 1907년 샤프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문학 지리학(literary geography)이라는 용어를 통해 소설 속에 나타난 지역을 일련의 지도로 제시하였다.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1970년대에 인간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한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문학 지리학이 지리학의 한 연구 분야로서 그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지리학의 일 분야로서의 문학 지리학의 주제는 경관에 대한 해설로서의 문학 작품이나 또는 지리학적 현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상으로서의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것이다.¹⁾ 하지만, 앞으로의 문학 지리학 연구는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 작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문학에서 '제주'라는 문학 공간과 관련한 논의는 강영기, 강치영, 오대혁, 장석주의 논의 등이 있다. 강영기²⁾는 「시에 나타난 '성산포'의 문학 공간적 의미」, 「시에 나타난 "제주시"의 문학적 공간 의미」, 「시에 나타난 '서귀포'의 문학적 공간 의미」, 「시 속에 나타난 마라도」를 통해 문학 지리학적 관점에서 시 작품에 나타난 제주가 지닌 문학 공간적 의미를 살피고 있다.

강치영의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 연구」³⁾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문학을 바라본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제주의 지형에 알맞은 문학 작품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제주 사람들이 지닌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

장석주는 「장소의 탄생」⁴⁾에서 제주 바다와 4·3을 통해 제주도를 문학 지리학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사람들이 겪은 시련을 이야기한다.

한편, 오대혁은 「남국의 신화와 옹이 박힌 토박이들의 삶 제주」⁵⁾를 통

-
- 1) 이은숙,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중』(논형, 2005), 22쪽.
- 2) '제주'와 관련한 강영기의 문학 공간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강영기, 「시에 나타난 '성산포'의 문학 공간적 의미」, 『영주어문』16집(영주어문학회, 2008), 221-233쪽.
강영기, 「시에 나타난 "제주시"의 문학적 공간 의미」, 『현대문학이론연구』31집(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31-52 쪽.
강영기, 「시에 나타난 '서귀포'의 문학적 공간 의미」, 『영주어문』14집(영주어문학회, 2007), 239-253쪽.
강영기, 「시 속에 나타난 마라도」, 『영주어문』13집(영주어문학회, 2007), 199-212쪽.
- 3) 강치영, 「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 연구」, 『탐라문화』 제 29호(탐라문화연구원, 2006), 7-43쪽.
- 4) 장석주, 『장소의 탄생』(작가정신, 2006), 322-329쪽.
- 5) 오대혁, 「남국의 신화와 옹이 박힌 토박이들의 삶 제주」, 김태준 편저,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 공간(상)』(논형, 2005), 384-396쪽.

해 고전문학적 측면에서 제주 만학의 공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주 사람들이 지닌 삶의 모습을 들려준다.

지금까지 논의된 문학 공간으로서의 제주에 대한 연구는 제주라는 지정학적인 공간과 그에 어울리는 작품에 대한 논의이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는 '제주도라는 문학 공간이 지닌 의미를 문학 작품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대시에 나타난 '제주도'라는 실존의 공간이 문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제주도'를 소재로 다양한 시작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것은 '제주도'에 대한 다양한 문학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구명 작업은 결국에는 한국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의미를 살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제주도'라는 문학 공간이 지닌 의미를 통해 제주 문화 혹은 제주 문학 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제주'가 지닌 자연적 관광 자원을 인문학적 관광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문학 공간 의미 분류와 제주도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4면의 바다로 이루어진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결국 외부와의 연결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으며, 그것은 '제주도'를 문학의 소재 혹은 문학의 공간으로 다루기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

문학에서 소재가 되는 지역 혹은 지역의 공간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텍스트의 공간으로서 문학의 공간이라는 의미, 둘째, 작가의 글쓰기에 투여된 체험 공간의 의미, 셋째, 문학작품이 생성해낸 작품 내에 그려진 지리적 공간의 의미이다. 한원균은 문학 공간의 의미 구분⁶⁾

을 통해, 문학 공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텍스트 자체로 성립하는 공간	텍스트의 구조
	사건과 서사의 진행 공간
지리적 대상으로서의 공간	작가 체험의 재구성
	텍스트 생성의 기원 혹은 반영 대상

한원균의 문학 공간 의미 분류를 재구성하여 시에 나타난 공간 의미를 분류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시의 소재로서의 고유 공간	1차적 의미 공간
시인이 생각과 느낌을 통해 창조해낸 공간	2차적 의미 공간
시를 통해 새롭게 의미가 생성된 공간	3차적 의미 공간

위의 표에 제시한 시에 나타난 공간 의미 분류를 시에 나타난 제주도에 적용하면, 시의 소재로서 고유한 '제주'의 모습을 지닌 제주도가 1차적인 의미가 된다. 또한, 시인이 생각과 느낌을 통해 만들어 낸 제주도의 의미는 2차적인 의미가 된다. 그리고 시를 통해 새롭게 제주도의 의미가 생성된 문학 공간적 의미를 3차적 의미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 나타난 문학 공간적 의미를 3개로 분류한 이유는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문학 공간의 의미가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학과 문학 공간의 관계를 '문학 공간-작가-작품-독자'⁶⁾로 놓을 때, 문학 공간과 작가가 지닌 문학 공간의 의미

6) 한원균, 「문학과 공간: 그 이론적 모색」, 『한국 문학공간과 문화산업』, 한국문화기술포럼연구소 제1회 전국학술세미나, 2005.

는 구체적인 공간 의미 그대로인 1차적 의미에 해당한다. 또한, 작가와 작품에 투영된 문학 공간의 의미는 작가의 시각이 반영된 2차적 문학 공간의 의미가 된다. 한편, 작품과 독자를 통해 생성된 문학 공간의 의미는 2차적 의미와 일치할 수도 있으며, 변형될 수도 있는 3차적 의미가 된다. 따라서 문학 공간의 의미는 시 작품을 통해 1차적 의미를 지닐 수도 있고, 2차적, 3차적인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또한, 1차, 2차, 3차적 의미가 교집합을 형성하는 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시 작품에 나타나는 '제주도'라는 문학 공간은 원래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의미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시인이 지닌 '제주도'에 대한 개인적 의미로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작품을 통해 새롭게 '제주도'의 문학 공간 의미가 생성될 수도 있다. 또한 작품을 읽은 독자가 그 의미를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 작품에 나타나는 '제주도'의 문학 공간은 다양한 의미를 생성한다.

3. 현대시 속에 나타난 제주도의 문학 공간 의미

현대시 속에 나타난 제주도는 다양한 문학 공간 의미를 담는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크게 '순수', '역사', '이국', '정체성'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렇게 의미를 분류하는 이유는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인인 경우에는 제주 문학의 측면에서 '제주'를 소재로 삼아 작품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제주가 지닌 역사, 제주의 정체성을 공간적 의미로 삼을 것이며,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인인 경우에는 제주에 잠시 머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상을 주된 소재로 작품 창작을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가 지닌 자연 혹은 서정적 요소, 이국적 소회에 대한 감상이 짙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7) 김창호, 「소설 태백산맥 문학공간의 공간 분류에 따른 콘텐츠화 연구」, 『현대문학 이론연구』 37집(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53쪽.

3.1. 순수 자연의 공간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기본적 취락 구조가 형성된 섬이다. 또한, 4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육지로의 왕래가 힘든 편이다. 물론, 교통의 발달로 인해 예전보다는 육지로의 왕래가 용이해졌지만, 그래도 힘들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현대에 들어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었다. 그것은 육지와 소통이 힘들다는 점 때문에 제주도는 순수의 공간, 자연의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제주도가 지닌 1차적 문학 공간 의미가 된다.

기다림의 오랜 침묵을
깨우는 아침
청량한 이슬들이
새순 가지를 적시고

부끄러운 알몸의 숲
태동의 푸른 생명줄
넷물들이 모여들었다

한라산 오르막 길
장승처럼 버터선
기암들

아흔 아홉 골 돌고돌아
노루 새끼들이
산마을을 기웃거렸다.

— 김용길, 「제주의 봄」⁸⁾에서

8) 제주문화원, 『문학 속의 제주-시선집』(제주문화원, 1997), 180쪽.

인용 시에는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순수의 공간 혹은 자연의 공간으로서 '제주도'가 제시된다. 이를 통해 시인은 제주도의 모습을 한 폭의 동양화처럼 그려낸다. 이 속에서 시인의 감정이 끼어든 부분은 “노루 새끼들이 산마을을 기웃거렸다.”라는 언술뿐이다. 나머지는 시인의 눈에 비쳐진 한라산의 모습이다. 이렇게 시인이 한라산의 모습을 자연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것은 “제주의 봄”이 지닌 왕성한 생명력과 순수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인은 “제주의 봄”이라는 시의 제목을 통해 제주도가 지닌 순수, 인공미가 가미 되지 않은 자연을 들려준다. 이 속에서 ‘제주도’는 1차적 의미의 문학 공간으로서 제주도가 지닌 본연적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백록담 산정호수에 노루가 졸고
 윗세오름 산새울음 목소리도 맑아
 이방인들 웃음소리로
 흰구름의 그림자를 날리며
 백록담은 치장을 한다

기생오름들도 신바람 났는가
 부드러운 능선들
 옅은 햇살에도 간지럼 타는
 어머니 젓가슴으로 안겨 온다

— 김정자, 「백록담」⁹⁾에서

인용 시는 한라산을 배경으로 한다. 인용 시에 나타나는 ‘백록담, 산정호수, 윗세오름’은 한라산을 이루는 요소들이며, 이를 통해 한라산은 1차적 문학 공간 의미를 지닌다. 이 속에서 시인은 “노루가 졸고, 산새 울음 목소리도 맑아, 기생오름들도 신바람 났는가, 어머니 젓가슴으로 안겨 온다” 등의 표현을 통해 한라산의 의미를 순수 자연의 공간으로 생성한다.

9) 제주문화원, 『문학 속의 제주-시선집』(제주문화원, 1997), 197쪽.

따라서 시인은 자신의 느끼는 감정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한라산을 2차적 의미의 문학 공간으로 창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인은 순수 세계를 이야기한다. 그 세계는 한라산을 이루는 자연 요소와 노루와 산새, 햇살의 모습을 통해 잘 드러난다. 한편, 순수 자연의 공간인 제주도는 시인이 순수를 지향하는 시작(詩作) 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바다속에서 전복따파는 제주해녀도
 제일좋은건 님오시는날 따다주려고
 물속바위에 붙은그대로 남겨둔단다.
 시의전복도 제일좋은건 거기두어라.
 다케어내고 허전하여서 헤매이리요?
 바다에두고 바다바래여 시인인것을…….

— 서정주, 「시론」¹⁰⁾전문

인용 시에는 제주 바다라는 공간에서 순수한 마음을 지닌 해녀를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를 속에서 ‘제주도’는 문학 공간 의미의 1차적 의미로 나타난다. 시인이 시를 통해 들려주는 해녀의 이야기는 험한 바다 속에서 일을 하면 생겨나는 제주 해녀가 지닌 고통, 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수함이다. 이러한 순수를 강조하기 위해 시인은 “제일좋은건 님오시는날 따다주려고 물속바위에 붙은그대로 남겨둔단다.”라고 다소 위트 있게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 속에는 해녀의 사랑 또는 사랑에 대한 순수함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제주 바다가 지닌 문학 공간 의미 분류 중 2차적 의미에 해당한다. 한편, 시인은 해녀가 지닌 혹은 제주 바다가 지닌 순수함을 바탕으로 자신의 시작(詩作) 역시 순수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시의전복도 제일좋은건 거기두어라.”를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의 의도 속에는 가장 순수한 시를 쓰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시상은 순수 공간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시인의 바람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시인의 역할이라고 시인은 생각한다. 결국 시인은 인용 시를 통해 순수

10) 제주문화원, 『문학 속의 제주—시선집』(제주문화원, 1997), 342쪽.

추구의 시를 지향한다. 그리고 순수를 이야기하기 위해 문학 공간으로서 제주 바다를 설정한다.

지금까지 제주도가 지닌 문학 공간으로서의 의미 중 순수 자연의 공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주도를 찾을 때 제주도가 지닌 훼손되지 않은 자연 환경을 보면서 감탄한다. 그리고 그 자연 환경을 닮고 싶어 한다. 이러한 인식은 문학 공간에서 제주도가 지닌 의미로서 1차적인 의미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주도가 문학 공간으로 자리할 때는 '순수' 혹은 '순수 자연'은 문학 공간 의미 중 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3.2. 역사 아픔의 공간

제주의 근·현대사는 아픔과 수난의 역사이다. 그 이유는 제주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4·3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 역사는 시인들에게 '제주도'라는 문학 공간을 역사의 공간 혹은 아픔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지니게 했다. 따라서 4·3과 관련한 시에 나타나는 제주도의 문학 공간 의미를 역사의 아픔으로 규정하게 한다. 이 속에서 생성된 '제주도'라는 문학 공간은 시인에 의해 창출된 2차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7조에 의거
사형집행을 명함 문병우 소위 외 9연대 탈영병 14명,
허남섭 외 일반인 232명 총 248명의 군법회의 사형
선고자
집행기일 1949년 10월 2일 집행장소 제주비행장
사형집행자 제주도 헌병대장 조영구

비행기 굉음보다 더한
아우성이
활주로 밑에
있다.

—김경훈, 「정뜨르 비행장에서」¹¹⁾ 전문

인용 시에서 1연은 4·3때 발생한 국가 폭력을 보여준다. 이것은 역사이며 사실이다. 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 위에서 상상력을 가미하여 역사를 문학으로 치환한다. 그것은 2연에 해당한다. 특히 2연에서 시인은 “비행기 굉음보다 더한 아우성”은 학살의 현장을 문학적으로 치환하면서 역사의 아픔 혹은 비극을 들려준다. 이 속에 제주도가 지닌 문학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생성된다. 그것은 역사 아픔의 공간이다. 이러한 역사 아픔이라는 인식은 문학 공간의 의미 분류에서 시인에 의해 생성된 2차적 의미라 할 수 있다.

어둡고 두려워 숨털까지 날이 선 밤
발작소리에 숨이 죽고 별빛도 없드리는 밤
군인들 대포쟁이 어디라 가릴 것 없이 찌르는데
얘기는 낮도 없는 길에서 무더기 총소리 맞았네.

—이원익, 「가시영경귀-북촌리, 너븐숭이 얘기무덤」¹²⁾에서

인용 시 역시 역사적 사실을 문학적으로 치환한다. 인용 시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실은 4·3 당시 자행된 북촌리 학살이다. 시인은 학살의 현장에 조성된 “너븐숭이 얘기무덤”을 보면서 참혹함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그것은 “얘기는 낮도 없는 길에서 무더기 총소리 맞았네.”를 통해 표현된다. 이 표현 속에는 역사의 아픔이 내재한다. 그리고 아픔은 제주도에 대한 인식으로 자리 잡게 한다. 이러한 시인의 인식은 결국 제주도라는 문학 공간을 역사로 인해 생겨난 아픔의 공간으로 만든다. 이것은 제주도가 지닌 문학 공간의 2차적 의미라 할 수 있다.

11) 김경훈, 『한라산의 겨울』(삶이 보이는 창, 2003), 110쪽.

12) 제주·충북작가회의 공동시집,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누리, 2007), 130-131쪽.

바람이 쓰러뜨리고 바람이 일으키는
 무자년 그 핏빛 음성 빈 들판 서성이며
 한 사발 맑은 뉘트로 불신의 벽 헐고 있다.

—오영호, 「3월, 들판에는」¹³⁾에서

인용 시에도 4·3이라는 역사가 나타난다. 시인은 바람 부는 빈 들판에서 4·3을 생각한다. 그것은 “바람이 쓰러뜨리고 바람이 일으키는”에서 나타나듯 요동치는 모습이다. 4·3은 제주도를 요동치게 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제주사람들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어갔다. 그러한 상황을 시인은 “무자년 그 핏빛 음성”으로 표현한다. 이 표현 속에는 4·3으로 인한 “아픔”이 내재한다. 이것은 문학 공간 제주도를 규정하는 의미가 된다.

지금까지 역사 아픔의 공간으로서 제주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사 아픔의 공간으로서 제주도를 문학 공간으로 설정한 작품에는 1차적 의미보다는 2차적 의미가 강하다. 그 이유는 역사적 사실을 사실로 그대로 기술하지 않고 그것을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 문학이라는 영역으로 치환했기 때문이다.

3.3. 이국 혹은 상상의 공간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작품 활동을 전개하는 시인들에게 ‘제주도’는 낭만적 요소가 짙은 이국적 공간이며 이를 통해 생성해 내는 상상의 공간이다. 이러한 문학 공간 의미는 2차적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제주도를 새롭게 의미 규정하는 3차적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이국 혹은 상상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 시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13) 오영호, 「화산도, 오름에 오르다」(고요아침, 2005), 42쪽.

제주도 서귀포의 겨울 밤은
별의 나라 보석 박힌 동화의 세상

—김봉렬, 『제주도 기행·1』¹⁴⁾에서

제주도에 여행 온 여행객이 보내는 서귀포의 밤은 동화의 세계일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서귀포의 겨울 밤을 “별의 나라 보석 박힌 동화의 세상”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이유는 ‘제주도=이국’이라는 생각이 잠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도 혹은 제주도 서귀포의 밤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 세계로 치환된다. 이 속에서 제주도는 더 이상 현실의 제주도가 아니라 상상의 세계 혹은 이국적 세계가 된다. 이러한 제주도의 문학 공간적 의미는 2차적 의미와 3차적 의미가 복합된 유형에 해당한다.

젊은날의 추억은 아니다
신혼의 여행은 더더욱 아니다
질은 구름에 덮인 하늘
사흘의 기다림을 접고
끝내 밟을 수 없던 땅

세월을 모아
내딛은 그 곳은 이국이었다
아름다운 내 조국의 극치
평화의 빛 유채꽃이라니
그래도 내 영혼 속의 제주도
그 아련한 한라산은
지금도 눈덮인 설국이다
생의 감옥에서의 탈옥이었다

—김주옥, 『그리운 한라산』¹⁵⁾에서

14) 제주문화원, 『문학 속의 제주—시선집』(제주문화원, 1997), 136쪽.

15)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2006), 134쪽.

인용 시에 등장하는 제주도는 신혼여행지가 아니다. 또한 “젊은날의 추억”을 찾는 공간도 아니다. 인용 시에 등장하는 제주도는 시인이 살아가는 현실과 또 다른 공간이다. 그곳은 “평화의 빛 유채꽃”이 핀 곳이며 봄에도 여전히 “눈덮인 한라산”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시인은 제주도를 이국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제주도가 지닌 문학 공간 의미를 현실에서 벗어나 평화를 추구하는 영혼의 공간으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제주도는 평화의 공간 혹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공간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이렇게 시인이 제주도에 대한 문학 공간 의미 확장은 문학 공간 의미의 유형에서 3차적 의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군산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삼십여 분간
 남해 바다에 떠 있는 섬에 갔었지.
 그 무덥던 지난 여름
 나를 반기던 유도화 가로수
 옥색 바다 바라보며
 그리움 간직한 채
 연분홍색 화사한 여인이었다.
 짙은 향기 머금고 언제나 밝은 미소
 지으며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이어도의 신부여.
 남국의 정열 간직한 유도화를 바라보며
 지난 날 즐겁던 향수에 젖어보네.

—이양근, 「유도화」¹⁶⁾전문

인용 시에 나타나는 제주도 역시 이국적 공간이다. 그곳은 유도화가 시인을 맞이하는 곳이며, 옥색 바다를 바라보며 그리움을 간직할 수 있는

16)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서정시 제주도』(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2006), 347쪽.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시인은 남국적 정열을 느낀다. 또한, 시인은 그 정열 속에서 유도화를 “이어도의 신부”로 치환시킨다. 이러한 이국적이고 남국적인 공간 ‘제주도’ 인식은 결국 시인에게 지난 날 즐겁던 향수에 젖게 만든다. 이 속에 제주도가 지닌 문학 공간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이국의 공간이며 정열의 공간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의미는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 인식이며 제주도가 지닌 문학 공간 의미에서 3차적 의미 분류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제주도가 이국 상상의 공간이라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주도가 지닌 의미가 이국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주도를 찾은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실존의 현실과 여행 온 제주도가 지닌 공간적 느낌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인은 작품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형상화한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라는 문학 공간적 의미를 3차적 의미 분류에 해당하게 한다.

3.4. 제주 정체성의 공간

실존 공간에서 집이 있는 장소는 의미 속에서 경험되는 정체성의 토대 공간이며, 의미의 심원한 중심이다.¹⁷⁾ 이러한 의미는 문학 공간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그래서 제주의 시인들은 제주도를 정체성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시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형상화는 ‘제주도’라는 문학 공간을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 사이에 생성되게 한다.

“이래 읊서.”

제주도에는 바다가 먼저 인사합니다.

“들어 읊서

들어왕 놀당 갑서.”

17) 장석주, 『장소의 탄생』(작가정신, 2006), 70쪽.

바람도 사랑 사랑 인사합니다.

“이래 아집서
조끄디 아장 돌이 동실 사랑흡서.”
돌들도 소곤 소곤 인사합니다.

“가당 오당 꼭 들립서, 양”
아아, 제주에는 모든 것들이
사랑되어 말을 합니다.

—김용해, 「제주사랑-1」¹⁸⁾ 전문

인용 시에는 제주의 자연이 의인화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제주를 이루고 있으면서 제주도를 제주도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제주의 자연은 제주 사람들이 지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소재가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주도는 인용 시에서는 사랑의 공간이 된다. 시인이 제주도를 사랑의 공간으로 만든 이유는 제주 사람들이 지닌 순수함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것은 “이래 읍서, 들어왕 놀당 갑서, 가당 오당 꼭 들립서”와 같은 시어를 통해 잘 드러난다. 시인은 제주도의 문학 공간적 의미를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제주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생겨난 관심과 사랑이라는 의미를 생성한다. 이러한 시인의 태도는 제주 사람들이 지닌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용 시에 나타나는 제주도의 문학 공간적 의미는 제주가 지닌 정체성이 된다.

태풍 불민 어떻허리
홍수 터지른 어떻허리
망망 대해
바당 혼가운데 살멍

18) 김용해, 『혼저 읍서게』(양지원, 1992), 25쪽.

즈들 일 하고 해주만
우린 서로 거넘흐명 살아십주.

—김종두, 『느영나영-2』¹⁹⁾에서

인용 시에는 “서로 거넘흐명 살아십주.”라는 표현을 통해 제주 사람들이 지닌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이며,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다. 또한 바다 한 가운데 뜬 섬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자연 환경은 “즈들 일”이라는 표현처럼 제주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 하지만, 척박한 자연 환경일지라도 제주 사람들은 그 환경과 함께 살아간다. 그것은 이웃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제주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인용 시에 등장하는 제주도는 정체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정체성의 공간은 제주도라는 문학 공간이 지닌 1차적 의미에서 시인의 시각이 더해져 생성해낸 의미라 할 수 있다.

저 바당에 절은 허영
제주 땅이 족아그네
굽굽흐국 굽굽흐여도
저 오름광 저 바당이
스시스철 고와그네
즈미지게 살암시네
옛 어른덜 귀양 오곡
벨 고생을 다 흐여도
저 오름광 저 바당이
스시스철 고와그네
그영저영 살단 보난
살아진 거주 살아진 거주

— 김광협, 『저 오름광 저 바당이 스시스철 고와그네』²⁰⁾에서

19) 김종두, 『사는 게 뭇산디』(영주문학사, 2005), 102쪽.
20) 김광협, 『돌할으방 어디 감수광』(백록, 1993), 102쪽.

인용 시에는 제주 사람들이 지닌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 그것은 “그영 저영 살단 보난 살아진 거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이 표현의 외연적 의미는 그냥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표현을 외연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인용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 표현이 지닌 내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인용 시에 대한 감상이 이루어진다. 인용 시에 표현된 “그영저영 살단 보난 살아진 거주”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인위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삶이 매우 척박하다. 그리고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땅의 면적을 비좁게 한다. 이러한 상황을 시인은 “저 바당에 절은 허영 제주 땅이 족아그네 굽굽허곡 굽굽허여”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시인은 “저 오름광 저 바당이 스시스철 고와 그네 즈미지게 살암시네”라는 표현을 통해 제주 사람들만이 지닐 수 있는 자연과 함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 속에 “그영저영 살단 보난 살아진 거주”라는 내포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인용 시에 등장하는 제주도는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제주도의 자연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정체성의 공간이 된다.

지금까지 제주도가 지닌 문학 공간 의미 중 하나인 제주 정체성의 공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주의 정체성을 문학 공간적 의미로 삼는 시인 경우에는 그 공간적 의미가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 사이에서 생성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이유는 제주도가 지닌 원래의 모습을 통해 시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정체성을 시로 형상화하기 때문이다.

4. 현대시에 나타난 제주도의 양상과 의미가 지닌 문학적 의의

사람은 장소에 의미를 만들고 부여하는 존재지만, 뒤집으면 장소는 사람에게 경험과 인식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정서와 인격을 키우고 의미의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촉매적 거점이다.²¹⁾ 이러한 장소에 대한 인식은 문

학에도 적용된다. 작가는 장소를 통해 정서와 인식을 획득한다. 이것은 문학 작품에 반영되어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공간이 지닌 의미가 된다. 또한 이를 통해 문학 작품의 공간은 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시 작품에도 이러한 논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시에 나타난 장소 혹은 공간은 시의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면서, 시의 내용을 형상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시 작품의 공간으로서 제주도 역시 그렇다. 현대시 속에 나타나는 제주도는 현실의 제주도가 지닌 실존적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 제주도의 새로운 의미를 형상화한다. 따라서 시에 나타난 제주도를 문학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문학 속에 나타난 배경이 되는 공간 또는 장소가 지닌 의미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나타나는가? 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한 전초의 작업이며,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문학적 의의가 있다.

한편, 시에 나타나는 공간의 의미 탐색은 문학 지도의 작성에 있어 기초 자료가 된다. 이를 통해 문학 지도가 작성될 때 그것은 문학사를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학적 작업은 결국 제주 문학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제주 사람들과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문학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비단 제주라는 지역 문학적 특수성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문학이라는 보편적 측면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문학 공간에 나타난 지역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자연을 이용한 관광 산업에서 문학을 통한 관광 산업으로 문화 관광과 관련한 기존의 관점을 전환시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1) 장석주, 『장소의 탄생』(작가정신, 2006), 140쪽.